

『제31회 국제환경기술전(ENVEX2009)』 성황리에 마쳐…

- 총 24개국 273업체가 참여하여 "LPI 하이브리드 저탄소 녹색자동차" 등 약 1,500여의 환경신기술 및 녹색 신제품 전시
- 중국, 일본, 베트남, 양골라 등 40여개국 600여명의 해외바이어 참가, 1,500억원의 수출계약 추진 및 향후 4,000억원 이상의 수출계약 전망

<편집부>



국내·외 최첨단 친환경 녹색기술이 한자리에 모인 『제31회 국제환경기술전(ENVEX2009)』이 서울 삼성동 코엑스 A실(구. 태평양홀)에서 총 24개국 273업체가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에 열려 지난 6월 12일 막을 내렸다.

환경보전협회(회장 손경식)에서는 환경부 후원으로 국가간 환경기술 교류를 통해 국내 환경산업의 해외 판로확장과 기술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매년 국제환경기술전을 개최해 오고 있다.

글로벌 “녹색경쟁시대”를 맞아 이번 전시회는 녹색 성장을 견인하는 핵심 녹색기술과 신제품 등 총

1,500여종이 전시되었으며, 국내 환경산업체에 새로운 해외시장 판로를 개척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환경산업의 수출 전략화에 큰 도움을 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환경보전협회에서는 매년 해외바이어를 초청함으로써 국내 환경산업체의 수출확대를 적극 지원하고 있다. 금년에도 중국, 베트남 등 해외진출이 유망한 21개 국가 해외바이어 약 120여명이 초청되었으며, 총 40여개국 600여명의 해외바이어가 전시장을 방문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이러한 해외바이어 초청은 그동안 새로운 해외시장

판로개척에 어려움을 겪어 왔던 국내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시기간 중 현장에서 참가업체들의 상담액과 계약액을 살펴보면 상담액이 4,085억원, 계약 추진액이 1,514억 원에 이르는 등 전시회가 참가업체들의 신제품 홍보 및 제품판매에 커다란 효과를 준 것으로 조사되었다.

올해 국제환경기술전에서는 도심지 대기오염의 주요인으로 지목되었던 자동차배출가스를 안전한 수준 까지 처리할 수 있는 세계적 수준의 순수 국산 핵심원천기술 등 다양한 신기술이 선을 보였다.

- 미래 친환경 자동차 시장을 선도할 것으로 기대되는 현대자동차가 개발한 친환경 LPI 하이브리드 자동차와 차세대 수소 연료전지 자동차가 전시되었으며,
- 상수원에서부터 가정의 수도꼭지까지 깨끗한 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 세계적 수준의 수처리 선진기술과 유기성 폐기물 등을 이용하여 바이오 가스를 생산하는 시스템 등이 전시되었다.
- 또한 허리돌리기와 줄당기기, 자전거운동을 하면서 전기에너지를 생산하여 핸드폰을 충전하는 다양한 자가발전 운동기구 등도 전시되었으며 직접 체험해 보는 자리도 마련되었다.

아울러 범국민적으로 현재의 경제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한 일환으로 저탄소 녹색성장에 대한 사회전반의 이해와 참여를 높일 수 있는 「저탄소 녹색 성장 대응전략 세미나」와 「기후변화 대응 지역 우수 사례 발표회」, 「환경 신기술 발표회」 등 국민, 공무원, 산업체 등 관계자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부대행사도 동시에 개최되었다.

금년에는 총 50,729명이 전시장을 참관한 것으로 집계되었으며, 참가국 동향 및 특징을 살펴보면, 총 24개국 273업체 중 국내업체는 190개, 외국업체는 83개사가 참가를 하였다. 참고로 대륙별 참가를 보면 아시아는 일본, 북미는 미국, 유럽은 독일, 프랑스 등의 순으로 대부분 선진국의 참가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1 참조]

또한 출품물 동향을 살펴보면, 전체적으로는 수질 분야가 34.8%로 가장 많고, 측정/분석기분야 19%, 대기분야 9.1% 순으로 나타났다. [표-2 참조]

2010년 전시회는 환경산업분야의 출품확대를 위하여 “국제환경산업기술전(2010. 6. 9 ~ 6. 12)”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그 규모 또한 750부스로 확대하여 국내 환경기술 판로 개척에 더욱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아울러 환경보전협회에서는 국내 환경산업체의 제품홍보와 수출 촉진을 위해 협회 주관으로 네델란드 아쿠아텍, 일본 오사카국제환경박람회, 중국 상해 환경전 등 주요 국제환경전에 한국관을 개설해 지속적으로 참가하고 있다. 금년 하반기에는 미국 올랜드 수처리 전시회(09. 10. 10~10. 14) 및 프라하 수처리 환경기술전(09. 11. 24~11. 28)에 참가(참가기업 국고 50~80% 지원)하여 한국관 홍보 부스를 운영할 예정이며, 향후 지속적으로 해외전시회 참가를 통한 환경 무역증진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국제환경기술전시회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http://www.envex.or.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표-1] 국가별 참가업체수

참가국 총계	한국	미국	독일	일본	중국	프랑스	온두리아	영국	스페인	벨기에	러시아	שווי스	대만	호주	캐나다	노르웨이	네델란드	아일랜드	핀란드	E.U	체코	이스라엘	이탈리아	인도
273	190	15	15	19	5	5	3	2	2	2	2	1	1	1	1	1	1	1	1	1	1	1	1	

[표-2] 분야별 출품현황

업체수	수질분야		대기분야		폐기물분야		환경 복원/ 토양	측정/ 분석기 분야	음식물 처리 분야	친환경 에너지	환경 서적	친환경 상품	환경 관련 기관
	처리 시스템	장비및 부품	처리 시스템	장비및 부품	처리 시스템	장비및 부품							
273	19	76	8	17	11	9	16	52	7	12	3	12	23